

기획논문

고구려 적석총에서 보이는 화장과 번소의 실상과 의미

최종택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고고학 전공

jtchoi@korea.ac.kr

국문초록

본고는 고구려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화장과 번소의 실상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고구려인의 장송의례와 죽음에 대한 관념의 일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적석총에서는 용석(熔石), 불에 탄 기와, 인골 등 다양한 화열 흔적이 확인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화장과 번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장을 시신을 불에 태워 장송하는 방법으로, 번소를 제의·정화·징벌 등의 목적으로 시신을 소각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였다.

집안 통구분지의 고구려 적석총을 비롯하여 요동반도 적석묘, 장백 간구자고분군, 통화 만발발자유적, 한반도 중부 지역 적석분구묘와 석촌동 연접식적석묘의 화장 자료를 비교한 결과, 고구려 적석총의 화열 흔적은 목곽적석총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목실·석실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고구려 주변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 화장과 다인합장, 집단묘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면 고구려 적석총의 화열 흔적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장송의례로서의 화장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는 다른 목적의 번소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고구려 적석총의 구조 변화와 함께 장송 방식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고구려, 적석총, 화장, 번소, 장속, 장송의례

투고일 2026. 7. 3. 심사일 2026. 8. 24. 게재 확정일 2026. 8. 27.

Special Issue

Nature and Significance of Cremation and Body Burning in Goguryeo Stone Mound Tombs

Choi, Jongtaik

Professor,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Convergence, Korea University
jtchoi@korea.ac.kr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remation and body burning in Goguryeo stone mound tombs to clarify aspects of Goguryeo funerary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death. Vitrified stones, fire-damaged roof tiles, and burned human remains have frequently been found in these tombs, yet previous studies have often interpreted such evidence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cremation from body burning. In this study, cremation is defined as the burning of the physical remains of the deceased as part of a funerary rite, whereas body burning refers to the burning of a corpse for ritual, purificatory, or punitive purposes.

Evidence from Goguryeo stone mound tombs in the Tonggou Basin is compared with evidence of cremation practices found in Liaodong Peninsula, the Ganguzi cemetery in Changbai, the Wanfabazi site in Tonghua, stone mound burials in the central Korean Peninsula, and the connected stone mound tombs at Seokchon-dong. Traces of burning appear relatively frequently in early timber-coffin stone mound tombs, decrease during the wooden-chamber stage, and become rare in stone-chamber tombs. Cremation, multiple burials, and collective burial traditions are also continuously documented in surrounding regions from the Bronze Age onward.

Overall, the evidence suggests that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burning traces in Goguryeo stone mound tombs was likely associated with cremation as part of funerary rites, although some instances may have resulted from body burning for other purposes. These findings may reflect broader transformations in tomb structure, funerary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death in Goguryeo society.

Keywords: Goguryeo, stone mound tomb, cremation, body burning, funerary customs, funerary rites.

Received July 3, 2026 Reviewed August 24, 2026 Accepted August 27, 2026

I. 머리말

고구려 고분 연구는 주로 묘제의 구조와 변천 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제와 장속, 고분군의 경관과 의례, 고분 축조와 매장 의례의 사회적 의미 등 장제와 의례 행위의 실체와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대사회에서 무덤의 축조와 관련된 상장례는 죽음과 재생을 기본 관념으로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과 삶은 단절적이거나 독자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연속적이고 상보적인 것으로 이해된다.¹ 이러한 점에서 시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가는 당시 사람들의 죽음과 사자의 신체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 적석총에서 보이는 화장(火葬) 또는 번소(燔燒)와 관련된 화열 흔적을 중심으로 사자를 처리한 방식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 고분에서 사자의 신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매우 소략하지만, 적석총에서는 적석부와 매장주체부 주변에서 고온의 화열을 받은 용석(熔石), 불에 탄 기와 석재, 드물게는 불에 탄 인골 등이 확인되며,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화장이나 번소의 흔적으로 이해해 왔다.²

그러나 화장과 번소는 모두 시신을 불에 태운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목적과 사회적 맥락에는 차이가 있다. 화장(cremation)은 시신을 불에 태워 장송하는 장법 또는 장송의례를 의미하는 반면, 번소(body burning)는 제의·정화·징벌 등 장송 이외의 목적에서 시신을 소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고고학 자료에서는 용석이나 불에 탄 기와 등의 화열 흔적만으로 화장과 번소를 명확히 관별하기 어려우며, 목곽·목실 등 목조시설의 소실이나 다른 화열 행위에 의해 유사한 현상이 형성되었을 가능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5-C08).

1 나희라,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서울: 지식산업사, 2008).

2 孫仁杰, 「高句麗積石墓葬具研究」,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1993); 方起東, 「高句麗의 墓制和 葬俗」,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93-1(1993); 강현숙, 『고구려 고분 연구』(과천: 진인진, 2013).

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장과 번소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되, 개별 자료의 성격은 화열 흔적의 출토 위치와 양상, 인골의 존재 여부, 매장주체부의 구조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³

기원전 4~3세기 이후 고구려 시기까지의 무덤이 연속적으로 조영된 통화 만발발자유적에서는 초기 토광묘 단계에서는 화장이 확인되지 않지만 석관묘 단계의 늦은 시기부터 화장이 나타나며, 이후 대개석묘와 대개석적석묘에서도 화장 관련 자료가 확인된다.⁴ 이들 묘제와 고구려 적석총 사이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계승 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일 지역에서 고구려 적석총 출현 이전부터 화장이 장송 방식의 하나로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고구려 초기 장속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된다.

그 밖에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와 압록강 상류의 장백 간구자교 분군에서도 화장과 다인합장 등의 장속이 확인된다. 최근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적석분구묘에서도 화열 흔적과 화장 관련 자료가 조사되고 있으며, 석촌동고분군의 연접식적석묘에서는 적석묘와 별도로 설치된 매장의례부에서 다량의 화장 인골과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석촌동고분군의 최근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화장 장소와 화장 인골의 최종 매납 장소가 서로 구분될 수 있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어, 고구려 적석총의 장속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된다. 다만 이러한 주변 지역 자료는 고구려 적석총과의 직접적인 계통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석묘와 관련된 화장 장속의 시공간적 양상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고구려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화열 흔적의 양상과 특징을 정리하고, 이어 주변 지역 적석묘에서 확인되는 화장 관련 자료를 비교·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적석총의 화열 흔적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를 장송의례

3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 또는 ‘번소’라고 표현하고, 자료만으로 성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열 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4 이종수,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 통화 만발발자유지 고고발굴 보고」, 『야외고고학』 37(2020); 이종수, 「통화 만발발자유적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71(2021).

로서의 화장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 적석총에서 나타나는 화장과 번소의 실상과 그 의미를 검토하고, 당시 사람들의 죽음과 사자의 신체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인식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고구려 적석총의 화열 흔적

고구려 고분에서는 불에 탄 인골을 비롯하여 용석(熔石), 불에 탄 기와와 석재 등 화열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집안지역 적석총에서 보고되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화장 또는 번소의 흔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용석이나 불에 탄 기와와 석재는 일정한 화열이 작용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시신의 화장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우선 ‘화열 흔적’으로 지칭하고, 그 출토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집안 통구분지 적석총의 화열 흔적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손인걸은 자신이 조사한 1천여 기의 적석총 가운데 약 350기의 함몰부에서 용석이 확인되고, 약 290기의 적석총에서 불에 탄 석재가 확인된다고 하였다.⁵

용석은 주로 고분 정상부의 함몰갱과 그 주변에서 확인되며, 적석부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불에 탄 기와와 토기, 드물게는 불에 탄 인골도 함께 보고되어 이러한 현상이 적석총의 축조 또는 장송 과정에서 발생한 화열 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다만 손인걸이 제시한 약 350기의 용석 출토 사례와 약 290기의 불에 탄 석재 출토 사례가 서로 중복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한 1천여 기의 고분에 대한 개별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두 수치를 합산하여 통구분지 적석총의 일정 비율에서 화열 흔적이 확인된다고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조사한 적석총 가운데 상당수에서 용석이나 불에 탄 석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고구려 적석총의 장속을 검토하는 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5 孫仁杰, 앞의 논문(1993); 方起東, 앞의 논문(1993); 강현숙, 앞의 책(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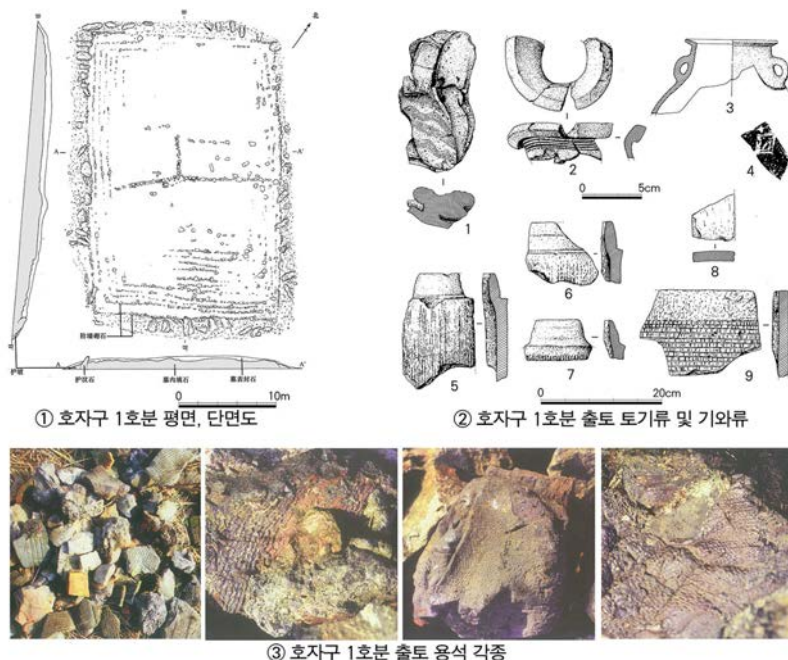


그림1-집안시 호자구 1호분과 출토 유물 및 용석⁶

화열 흔적의 구체적인 양상은 비교적 최근에 조사된 호자구고분군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호자구고분군에서는 7기의 적석총이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1호분과 6호분에서 용석이 확인되었다.⁷ 특히 규모가 큰 호자구 1호분에서는 고분 정상부 중앙의 함몰갱 주변을 중심으로 다수의 용석과 불에 탄 기와가 확인되었으며, 적석분구 곳곳에서도 용석과 불에 탄 기와가 출토되었다(〈그림1〉). 이러한 양상은 화열 흔적이 매장주체부로 추정되는 중앙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도

6 ①·②: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8年集安市洞溝古墓群考古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9輯(2010), 〈도 15〉, 〈도 18〉; 381~420쪽. ③: 長福有, 『高句麗王陵通鑑』 (香港: 香港亞洲出版社, 2007), 101쪽.

7 기존 조사에서 1호분은 계단식적석총 또는 기단식적석총으로 보고되었으나(長福有·孫仁杰·遲勇, 「集安蒿子溝墓地調查與東川王陵考」, 『東北史地』 2006-3(2006)), 2008년 추가 조사를 통해 계장식적석총으로 확인되었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앞의 논문(2010).

적석분구의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용석과 불에 탄 기와가 현재 확인되는 위치에서 직접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적석총은 축조와 장송의례, 이후의 붕괴와 교란 등 여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화열을 받은 석재나 기와가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용석이 중앙부 함몰갯뿐만 아니라 적석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을 곧바로 적석총 내부의 특정 장소에서 화장이 이루어진 증거로 이해하기보다는, 화열 행위 이후 적석 과정에서 이동하거나 재매납되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자구 1호분의 조영연대는 보고자에 의해 구조적 특징과 출토 기와 등을 근거로 대체로 3세기대로 편년되었다. 다만 고구려 초기·중기 적석총의 절대연대에는 연구자 간에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마선 626호분이나 칠성산 871호분 등 다른 적석총과의 비교를 통해 그 연대를 보다 세밀하게 확정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개별 적석총의 절대연대를 새롭게 설정하기보다는 화열 흔적이 적석총의 어떠한 모형과 구조에서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호자구고분군 이외에도 집안지역의 여러 적석총에서 용석과 불에 탄 석재 등이 보고되어 있다. 마선 626호분·2378호분, 산성하 전장 36호분·1호분, 칠성산 871호분 등 비교적 이른 단계의 대형 적석총에서도 용석 또는 불 맞은 석재가 확인되며,⁸ 우산 3105호분과 2403호분 등에서도 화열을 받은 석재가 보고되어 있다. 이처럼 화열 흔적은 특정 고분에 한정되지 않고 집안지역의 여러 적석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집안지역 적석총의 경우 대부분 일찍부터 도굴되었거나 지표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분구와 매장주체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용석이나 불에 탄 석재가 확인되더라도 정확한 출토 위치와 수량, 주변 유구와의 관계가 상세하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별 사례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자료로 화열 흔적의 전체적인 출현 비율이나 모형별 빈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集安高句麗王陵』(北京: 文物出版社, 2004), 378쪽.

그럼에도 기존 조사와 연구를 종합하면 화열 흔적은 목곽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비교적 이른 단계의 적석총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보고되고, 목실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그 사례가 감소하며, 석실적석총 단계에서는 드물게 확인되는 경향이 있다.⁹ 고구려 적석총의 모형은 매장주체부를 기준으로 목곽 → 목실 → 석실로 변화하고, 분구의 구조 역시 무기단식 → 기단식·계장식 → 계단식으로 변화한다.¹⁰ 이러한 묘제의 변화와 화열 흔적의 출현 양상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기의 무기단목곽적석총과 기단목곽적석총은 목곽을 매장주체부로 사용하였으며, 목곽 주변과 상부를 돌로 덮어 봉하는 구조이다. 이후 기단목실적석총이나 계장목실적석총 단계에는 출입구가 설치된 목실이 사용되고, 다시 계단석실적석총 단계에는 석실이 매장주체부로 정착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추가장의 가능성이나 장송의례의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화열 흔적이 목곽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석실 단계로 갈수록 드물어지는 현상이 실제 장송 방식의 변화와 관련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화열 흔적의 원인을 단일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목곽이나 목실과 같은 목조 매장시설이 어떠한 원인으로 소실되면서 주변 석재가 화열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송 과정에서의 의례적 소각이나 기타 화열 행위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불에 탄 인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신에 직접 화열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장송의례로서의 화장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번소인지는 출토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고구려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용석과 불에 탄 기와 및 석재는 우선 화열 행위가 존재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시신의 화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개별 적석총의 출토 맥락뿐만 아니라 고구려 적석총 출현 전후 주변 지역의 화장 장속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요동반도와 혼강·압록강 상류 및 한반도 중부 지역

9 孫仁杰, 앞의 논문(1993).

10 강현숙, 앞의 책(2013); 강현숙·양시은·최종택, 『고구려 고고학』(과천: 진인진, 2020); 최종택, 「고구려 적석총 군집묘 축조와 흔적」, 『한국학』 47-3(2024).

의 적석묘에서 확인되는 화장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고구려 적석총의 화열 흔적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 자료로 삼고자 한다.

Ⅲ. 고구려 주변 지역의 적석묘 전통과 화장

앞에서 고구려 초기의 무기단식적석총에서 3세기대 계장식적석총에 이르기까지 화장이나 번소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는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고구려 적석총의 형성 과정에 대한 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적석총 출현을 전후한 시점의 주변 지역 적석묘 전통과 화장 습속을 살펴봄으로써 고구려 적석총에서 보이는 화장의 실상을 고찰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들 적석묘와 고구려 적석총의 직접적인 계승 관계를 밝히기보다는 고구려 적석총 출현 전후 주변 지역에서 확인되는 적석묘와 화장 장속의 시공간적 양상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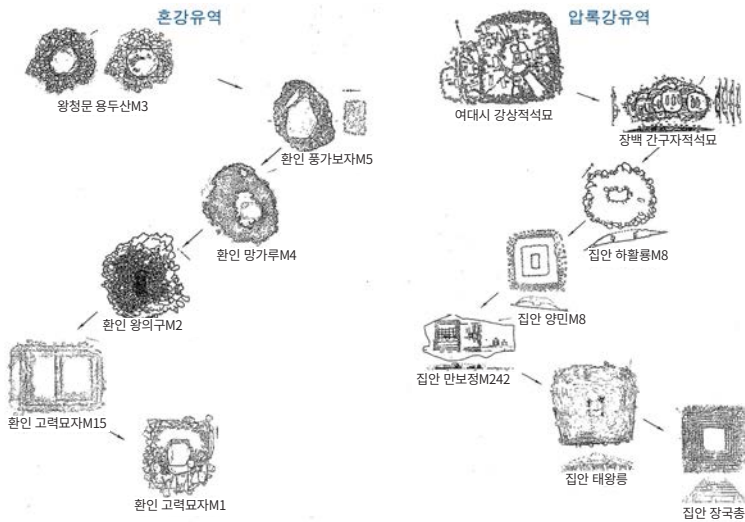


그림2-고구려 적석총 기원과 변천 모식도¹¹⁾

11) 李新全, 『高句麗早期遺存及期起源研究』(長春: 吉林大学博士学位論文, 2008), 〈도 98〉, 〈도 99〉.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크
 게는 일원설·이원설·복합설 등으로 구분된다.¹² 일원설은 가장 오래된 견해의
 하나로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을 구하
 는 것이다. 여대시 강상유적과 루상유적의 적석묘에서 보이는 적석분구와 지상
 식 묘제, 화장 습속, 집단묘 전통 등을 고구려 적석총과의 공통점으로 보아 이를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속과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상의 공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원설은 고구려의 발상지인 혼강유역과 압록강 중·하류유역 적석총의 기원
 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것으로, 근래 새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요동반도 적석
 묘 기원설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주목된다(〈그림2〉). 즉,
 압록강 중·하류유역은 여대시 강상유적 적석묘의 영향을 받은 장백 간구자고분
 군의 연접식적석묘를 고구려 적석총의 직접적인 연원으로 보고, 혼강유역 고구
 려 적석총은 환인지방에서 조사된 석개석광적석묘에서 연원을 구하는 것이다.¹³
 이러한 견해에서 간구자적석묘는 고구려 초기 무기단적석총과 시공간적 공백이
 없다는 점에서 일원설에 비해 설득력이 크다. 그러나 간구자 적석묘에서 보이는
 방사상으로 연접·확장되는 특징적인 구조의 묘제를 고구려 초기 적석총에서 찾
 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강상묘와 간구자고분군 사이의
 시공간적 차이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혼강유역의 경우에는 환인 풍가보자 5호분과 같은 석개석광적석묘의 영향으
 로 환인 망랑루 4호분과 같은 고구려 초기 적석총이 등장한다는 주장으로 두 묘
 제가 시공간적으로 겹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석개석광적석묘가 지
 하식 묘제라는 점과 적석부를 분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¹⁴

최근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과 관련하여 통화 만발발자유적이 주목을 받고 있

12 강현숙, 「만발발자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 『동북아역사논총』 71(2021).

13 李新全, 앞의 책(2008); 李新全, 「辽东地区积石墓的演变」, 『東北史地』 2009-1(2009).

14 강현숙, 앞의 논문(2021).

다. 통화 만발발자유적은 혼강을 따라 환인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으며, 국내성이 위치한 집안지역과 인접해 있다. 유적에서는 수혈토경묘, 석관묘, 대개석묘, 대개석적석묘 등의 묘제가 기원전 6세기경부터 기원전 2세기경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으며, 이어서 고구려 초기의 무기단적석총과 기단적석총이 축조된다. 통화 만발발자유적은 동일 공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묘제가 시간적 선후에 따라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구려 적석총이 축조되기 직전 시기의 묘제인 대개석적석묘는 세부적인 구조에서 고구려 적석총과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계승 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동일 지역에서 고구려 적석총 출현 이전부터 적석과 화장 등의 요소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고구려 초기의 묘제와 장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된다.

이상과 같이 이들 적석묘는 고구려 적석총과 시공간 및 구조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계통 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구에 돌을 사용하고 일부에서 집단묘와 화장 등의 장속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고구려 적석총의 화열 흔적과 장속을 검토하기 위한 비교 자료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에서는 화장 습속이 보이는 청동기시대 이후 요동반도 적석묘의 구조와 장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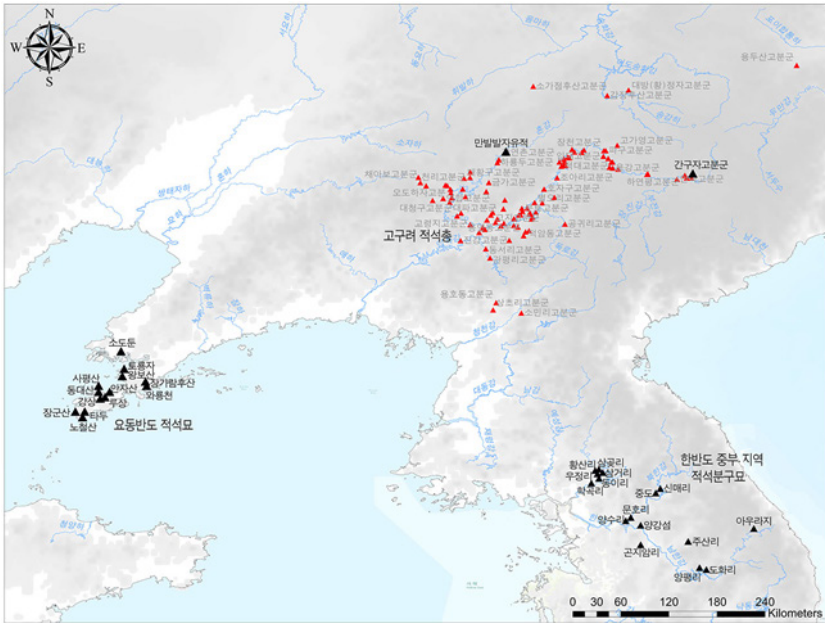


그림3-고구려 적석총과 요동반도 및 한반도 중부 지역 적석묘 분포도

을 검토하고, 고구려 적석총과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통화 만발발자유적과 장백 간구자고분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한 반도 중부 지역 원삼국시대 적석분구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그 문화적 계통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구려 적석총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전제하기보다는 적석분구와 화장, 집단묘 등의 장속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구려 적석총과 구조 및 축조 방식에서 여러 공통점이 지적되어 온 석촌동고분군 연접식적석묘의 구조와 화장 습속에 대해서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그림3〉).

1. 요동반도 적석분구묘와 화장

요동반도에는 신석기시대 만기에서 청동기시대를 거쳐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오랜 기간 적석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요동반도의 적석묘는 지상에 돌무지 분구를 쌓고 그 내부에 매장주체부를 설치하는데, 시공간으로 세부적인 구조 차이가 있지만 적석분구와 화장 및 집단묘 등의 공통점은 2000년 이상 지속되는 전통이 강한 묘제이다. 분구 형태는 방형·장방형이 일반적이지만, 지형 조건에 따라 타원형·삼각형 등 다양한 평면이 조사되었다. 매장주체부는 할석을 쌓거나 판석을 세워 만든 장방형 석곽묘도 있지만 뚜렷한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 함몰갱이 대부분인데, 목곽이나 목관을 안치하고 돌을 덮은 구조로 이해된다.

요동반도의 적석묘는 기본적으로 집단묘의 특징을 공유하는데, 하나 이상의 묘곽이 있는 분구를 열상으로 배치하는 형태의 열상연접묘와 하나의 분구에 여러 기의 묘곽이 사방으로 연접하는 다곽식연접묘로 대별된다.¹⁵ 열상연접묘는 분구와 분구가 열상으로 연접된 것으로 사평산 35호분이나 토룡자 4호분과 같이 7~8기가 일렬로 연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평산 36호분의 경우 31기가 일렬로 연접되기도 한다. 다곽식연접묘는 하나의 분구 안에 여러 기의 묘곽이 연

15 적석묘의 이러한 배치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요동반도 적석묘를 열상형과 응집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강현숙, 「중국 요동반도 남부 선사시대 적석분의 고고학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132(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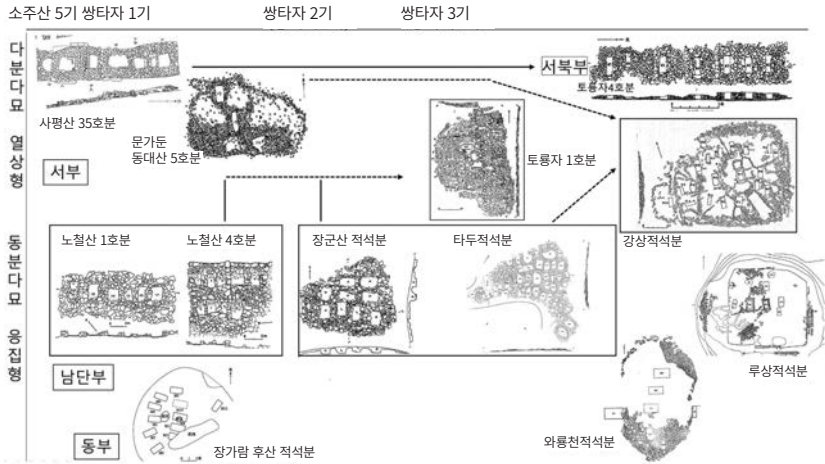


그림4-요동반도 남부 적석묘의 시공간적 양상¹⁶

접된 것으로 적계는 수 기에서 많게는 수십 기의 묘곽이 하나의 분구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다곽식연접묘는 노철산적석묘와 같이 묘곽의 장축 방향이 나란히 연결된 유형과 타두적석묘나 강상적석묘와 같이 일정한 방향 없이 여러 기의 묘곽이 연결된 유형으로 세분되는데, 후자의 경우 묘곽과 묘곽 사이의 격벽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요동반도 적석묘의 시공간적 양상은 <그림4>와 같이 요약되는데, 대련시를 중심으로 서북부-서부-남단부-동부로 구역화된다. 서북부는 소도둔·토룡자·왕보산 등 초기~중기 적석묘가 분포하며, 적석묘의 시작과 전개를 보여 준다. 서부 지역은 사평산·문가둔·안자산 등 주요 적석묘군이 밀집 분포하며, 강상·루상 같은 후기 다곽식연접묘가 포함된다. 남단부에는 노철산·장군산·타두 적석묘가 분포하며, 구조와 장축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지역이다. 동부 지역은 장가람 후산 및 와룡천적석묘가 위치하며 후기의 화장 중심 장축과 다곽식연접묘 구조를 대표한다. 이러한 분포상의 변화는 초기에는 해안가 중심, 후대로 갈수록 내륙 구릉이나 언덕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적석묘의 구조 역시 초기의 열상연접묘에서 후기 다곽식연접묘로 변화하는데, 이는 집단의 사회적 조직력 강화와

16 강현숙, 앞의 논문(2024), <그림 8>.

매장 의례의 복잡화와 관련된 변화로 해석되기도 한다.¹⁷

요동반도 적석묘의 장속은 단인장·다인합장·화장이 관찰된다. 다인합장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인골의 중층적 양상으로 볼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매장부 한편에 집결된 현상으로 미루어 천장(遷葬)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장된 인골 중에는 화장 흔적이 있어서 2차장으로서 화장이 상정되지만, 무덤 내에서 불에 탄 흔적과 함께 불에 탄 뼈가 확인되어서 매장부 내에서 직접 화장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상유적의 경우 일부 묘곽에서 화장된 인골의 수량과 배치가 비교적 자세히 조사되었는데, 화장한 대다수의 묘곽에는 수 개체의 인골이 틈도 없이 겹쳐 있었고, 대부분 머리를 북쪽과 남쪽으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또한, 하나의 묘곽 내에 성인의 인골과 함께 소아의 뼈가 섞여 있었는데, 하나의 묘곽 내에 복수의 시신이 동시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신을 안치한 후 위에서 태운 것으로 보이는데, 인골의 윗면은 잘 닳으나 아랫면은 그렇지 못하다. 묘곽에 묻힌 시신의 수는 각각 다른데, 인골이 가장 많은 19호 묘곽에서는 18개체분의 인골이 출토되었고, 가장 적은 3호와 20호 묘곽에서는 각각 2개체분의 인골이 출토되었으며, 남은 척추골과 두개골의 수만으로 보아도 총 23기의 묘곽 내에 출토된 인골은 최소 144개체분에 달한다.¹⁸

적석묘의 장속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인장 → 다인합장 → 화장 병행으로 변화한다. 초기의 사평산·안자산·왕보산 등에서는 앙신직지 자세의 단인장이 일반적이지만, 쌍다자 1기 이후 시기에는 다인합장이 점차 증가한다. 타두적석묘와 토룡자 1호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검을 추가 매장한 흔적이 확인되며, 일부에서는 외부 화장 후 매장하거나, 매장부 내부에서 직접 화장을 시행한 사례도 있다.¹⁹ 화장하는 장속은 안자산적석묘와 왕보산적석묘 단계에서 이미 출현하였지만, 요동반도 남단의 장군산·노철산·타두적석묘에서는 화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17 강현숙, 앞의 논문(2024).

18 朝中合同考古學發掘隊, 『岡上樓上-1963-1965 中國東北地方遺蹟發掘報告』(東京: 六興出版, 1965), 86쪽.

19 강현숙, 앞의 논문(2024), 562-563쪽.

반면, 요동반도 북쪽 지역에서는 타두적석묘보다 약간 이른 시기의 토룡자적석묘에서 화장의 장속이 출현하는데 그 비율은 44%에 달하며, 이후 강상적석묘에서는 87%, 루상·와룡천 적석묘에서는 모든 묘곽에서 화장이 행해졌다.²⁰ 이상과 같이 강상·루상·와룡천 적석묘에서는 거의 모든 매장부에서 화장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곽식연접묘 전통과 결합해 후기 적석묘의 특징적인 장속으로 자리 잡는다. 요동반도 적석묘 후기의 이러한 전통은 고구려 초기 적석총과 시공을 공유하는 장백 간구자고분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고구려 적석총의 구조와 장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비교 자료이다. 다만 이들 적석묘와 고구려 적석총 사이에는 상당한 시공간적 간격과 구조적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계승 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라기보다 동북 지역 적석묘에서 나타나는 묘제와 장속의 장기적인 전통을 살펴보기 위한 비교 자료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압록강 상류 및 혼강유역 적석묘와 화장

고구려 초기 적석총과 공간을 공유하는 압록강 상류의 간구자고분군과 혼강유역의 만발발자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적석묘 전통과 화장 습속을 공유하고 있다. 압록강 상류 장백현에 위치한 간구자고분군은 고구려 적석총이 등장하기 직전 단계의 고분군이며, 혼강유역 통화 만발발자유적은 기원전 6세기경부터 고구려 초기에 이르는 다양한 형식의 분묘가 동일 지점에서 조사되어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관련해 중요한 유적이다.

장백 간구자고분군은 압록강 북안으로 흘러드는 간구자천 좌우에 52기 이상의 고분이 4개 구역으로 나뉘어 분포하고 있다.²¹ 개별 고분은 하나의 묘단(주묘단)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부묘단 또는 속묘단이 방사상으로 연결하는 집단묘 형태를 이룬다. 지면에 비교적 커다란 석재를 이용해 일정 범위의 묘역을 조성한 후 지면에는 강돌과 할석을 깔아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묘단을 구축하였으며,

20 張長江, 「于家砬頭墓地研究」(瀋陽: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43~44쪽.

2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논문(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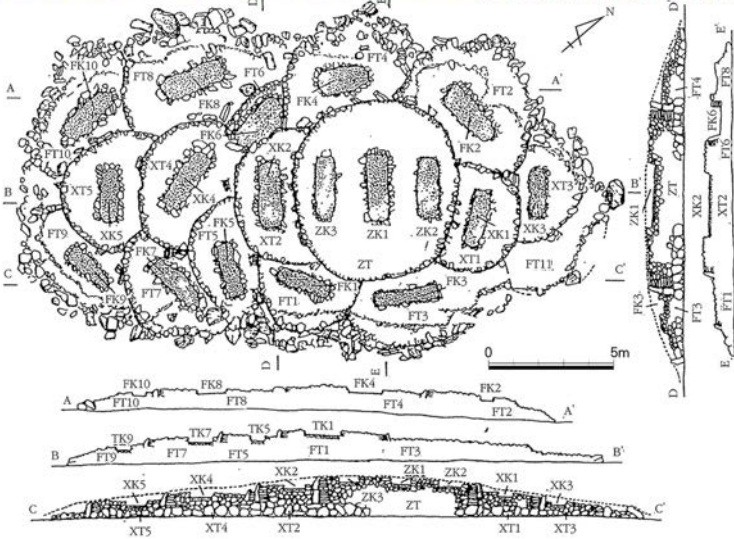


그림5-장백 간구자고분군 B지구 2호분(BM2) 전경 및 평·단면도²²

주묘단의 바깥쪽으로는 타원형이나 부채꼴로 부묘단을 연속해서 구축해 커다란 집단묘를 이루게 된다. 각 묘단의 외곽은 커다란 강돌을 층층이 쌓아 올렸는데, 외곽의 윤곽이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는 묘단 외곽을 따라 판석을 돌려 세우기도 한다. 묘단의 중앙부에는 묘광을 설치하는데, 중앙 주묘단에는 1~3기의 묘광을 설치하지만 외곽의 부묘단과 속묘단에는 대체로 1기의 묘광을 설치한다. 전체 묘단의 평면은 장타원형·타원형·방형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B지구 2호분의 경우 타원형으로 전체 길이는 25m가량 되는데, 주묘단 1기를 중심으로 속묘단 5기, 부묘단 11기가 연결된 형태이다. 주묘단은 원형으로 3기의 묘광이 있으며, 부묘단과 속묘단에는 각각 1기의 묘광을 조성하였다(그림5)).

2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吉林長白顯干溝子墓地發掘報告」, 『考古』 2003-8(2003), 〈도판 5-3〉, 〈도판 8〉.

묘광의 평면은 장방형 또는 타원형이며, 목관 등의 장구를 사용한 흔적은 없다. 묘광의 바닥에는 인골과 함께 대량의 목탄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묘광 내에서 직접 화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에 탄 인골편과 목탄이 출토되더라도 묘광에 불 맞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외부에서 화장을 실시한 후 인골 잔편을 수습해서 묘광 내에 매납한 2차장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인골은 길이 5cm 내외의 회백색 인골이 산재하는 점도 2차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생각된다. 한편, 간구자고분군은 하나의 주요단을 중심으로 여러 기의 작은 부묘단과 속묘단이 연결하는 형태적 특징을 근거로 주종관계를 반영한 집단묘이거나 가족 합장묘로 추정된다. 특히, A지구 1호묘의 경우 불에 탄 인골을 묘광 내부 2~3곳에 무더기로 안치하였으며, 토기는 묘광 양쪽 끝에 부장한 점으로 미루어 동일 가족의 합장묘로 추정되고 있다.²³

간구자고분군에서 출토된 ‘一化’, ‘半兩’, ‘大泉五十’ 등의 동전을 통해 볼 때 고분군의 연대는 전국 만기에서 전한 시기로 편년된다.²⁴ 또한 간구자고분군 출토 토기의 유형을 근거로 청동기시대 두만강유역에 분포한 유정동(柳庭洞) 문화에 속하며, 간구자고분군의 적석묘 전통은 요동반도 남단 여순-대련 지구의 적석묘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⁵

통화 만발발자유적은 길림성 통화시 금창진 동창구 혼강유역의 구릉에 위치해 있는데, 졸본과 국내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동쪽의 산에서 흘러내린 능선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데, 유적 중앙의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상대고도 15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이며, 동쪽은 비교적 높은 산으로 이어져 급경사를 이룬다. 유적의 서쪽에서는 주로 생활유구가 확인되며, 동쪽에서는 분묘가 조사되었다.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이래의 주거지와 수혈유구, 구상유구, 환호와 함께 56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²⁶

2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논문(2003).

2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위의 논문(2003).

25 赵俊杰·馬健·金旭東, 「吉林长白县干沟子墓地的文化性质与相关问题」, 『考古』 2016-5(2016).

2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北京: 科學出版社, 2019).

분묘는 토광묘, 석관묘, 석곽석관묘, 대개석묘, 대개석적석묘, 무기단적석묘, 기단적석묘 등으로 구분되는데, 무기단적석묘와 기단적석묘는 고구려 시기에 해당된다(〈그림6〉). 토광묘는 A, B 두 형식으로 구분되며, 기원전 6~5세기경의 청동기시대 만기에 해당한다. 토광묘 중에는 여러 구의 시신을 함께 매장한 집장묘도 확인되는데, 21호 토광묘는 35구의 시신이 함께 매장된 특이한 사례로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동시에 사망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매장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⁷ 석관묘는 세 유형이 있는데, A형과 B형 석관묘는 청동기시대 만기, C형은 서한 시기 또는 양한 교체기에 해당한다. 석곽석관묘는 묘광을 파고 할석으로 방형의 석곽을 조성한 후 내부에 판석조의 석관을 별도로 구축한 특이한 형태이다. 석관 내부는 3층에 걸쳐 시신과 부장품을 매장하였는데, 다인합장으로 시신을 불에 태운 화장의 흔적이 확인된다. 각 층마다 자갈을 깔아 상면을 만들었으며, 제일 아래층은 바닥에 판석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자갈을 깔아 상면을 만들었다. 석관의 상부는 여러 개의 판석을 덮고, 그 위는 다시 커다란 돌을 얹었으며, 그 위는 흙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석곽석관묘는 1기에 불과한데, 출토유물로 보아 C형 석관묘와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대개석묘는 지하에 묘광을 파고, 돌로 네 벽을 만든 후 커다란 돌로 뚜껑을 덮은 것으로 매장부 구조와 축조 방식에 따라 A·B·C, 3유형으로 구분된다. A형은



그림6-통화 만발발자유적 III~IV기 고분 형식 각종²⁸

27 이종수, 앞의 논문(2021).

2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앞의 책(2019) 해당 도면 발췌 편집.

지하의 석관은 네 벽에 완벽하게 돌을 쌓은 밀폐된 상자형이 아니지만, 석관 내부 중간에 돌을 세운 격벽이 매장과 부장 공간을 분리한 것인데, 격벽으로 매장 부 공간을 분리한 것은 길림지역 청동기시대 서단산문화 석관묘의 특징적인 구조이다. B형은 석관 내부 바닥에 시설을 하였으며, 개석 주위에 적석시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C형은 지하 묘광을 2단으로 굴광하고 석관을 한쪽에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다른 두 형식에 비해 늦은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대개석적석묘는 2기가 조사되었는데, 출토유물로 보아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대개석적석묘는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A형은 지하에 석관을 만들고 개석을 덮은 뒤 그 위에 돌을 쌓아 분구를 조성한 것으로 분구식이라 할 수 있으며, B형은 묘광 주위에 돌을 쌓아 묘역을 조성한 후 개석을 덮은 묘역식이다.²⁹

무기단적석묘는 지면을 정리하고 자갈을 깔아 바닥면을 조성한 후 비교적 큰 할석으로 묘광을 만든 후 주위에 적석을 한 형태로 고구려 초기 무기단적석총과 같은 형태이다. 보고문에 따르면, 묘광 내부에는 인골과 부장품을 매납한 후 그 상태에서 화장을 하고, 흙으로 덮은 후 잡석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다고 한다. 여러 개체의 인골이 출토된 다인화장묘로 인골은 충분히 연소되어 있으며, 부장품에도 불에 탄 흔적이 있다.

기단적석묘는 평면은 방형이며 북동쪽 모서리가 장방형으로 튀어나온 형태이다. 지표상에 큰 할석으로 남북 길이 6.5m, 동서 너비 6m의 1층 단을 조성하고, 그 안쪽을 잡석으로 채웠다. 그 위에 안쪽으로 50cm 들어서 방형의 2층 단을 만들고, 다시 50cm 안쪽으로 들어 3층 단을 축조하였다. 3층 방형 단에 장방형의 묘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묘광 네 벽은 큰 할석으로 비교적 정연하게 쌓았으며, 바닥에는 자갈돌을 깔아서 마무리하였다. 자갈돌 위에 시신을 안치하고 상부를 판석으로 덮은 후에 잡석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는데, 인골에서 화장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두개골은 묘광의 동쪽에 산재해 있고, 사지골은 묘광의 중앙 서측에 안치되어 있다. 뼈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2차장으로 추정되며, 3~5인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단적석묘는 출토유물로 보아 3~5세기대로

29 강현숙, 앞의 논문(2021).

추정된다.³⁰

통화 만발발자유적의 화장 습속은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중엽경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C형 석관묘 단계에서부터 화장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화장은 시신을 안치한 후 묘광에서 직접 불에 태운 것으로 매장 절차의 한 과정인 번소 의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무덤이 곧 화장터가 되는 이러한 방식의 장법은 주검을 태움으로써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북방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던 장속으로 이해하고 있다. 요동지역의 화장도 비슷한 관념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화장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확인되기 시작하며 시공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전기로 비정되는 마성자문화의 동혈묘와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에서 관찰되며, 초기철기시대의 신빈 왕청문 용두산 암혈석개묘와 길림의 유수 노하심 중층의 토광묘, 그리고 고구려 초기 적석총에서도 관찰된다. 이러한 번소의식으로서 화장은 중국 동북지방의 오랜 전통을 가진 장속으로 이해되고 있다.³¹

3. 한반도 중부 지역 적석분구묘와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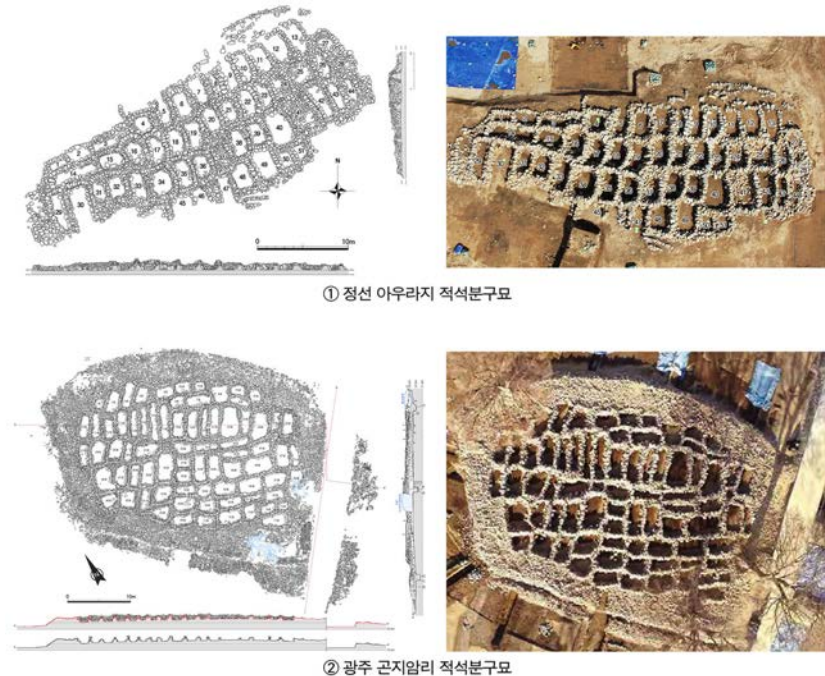
1980년대 초 춘천시 중도유적에서 적석총이 조사된 이래 한반도 중부 지역에 서 30여 개소의 적석총이 조사되었다(〈그림3〉). 한반도 중부의 적석총은 자연사구 위에 강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고구려의 무기단적석총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출토 유물과 시공간적인 차이가 있어 ‘중도식적석총’ 또는 ‘좁석식적석총’, ‘묘곽연접식적석총’, ‘적석분구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다.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유형의 적석총에서 여러 개의 묘곽이 조사되고, 최근에는 수십 개의 묘곽이 연접된 구조가 자세히 밝혀지고 있다. 최근 정선 아우라지 유적과 광주 곤지암리, 원주 주산리, 양평 양강섬 유적 등에서 축조 방식과 구조가 자세히 밝혀졌다(〈그림7〉). 자연사구 위에 지면을 고르고, 묘곽을 조성한 후 적석분구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적석분구묘라는 명칭이 구조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

30 이종수, 앞의 논문(2020).

31 강현숙, 앞의 논문(2021), 170쪽.

각되며,³² 이하 글에서는 ‘적석분구묘’로 칭하기로 한다. 묘곽 내부와 적석부에서 원삼국시대~백제 초기의 유물이 출토되는데, 축조 집단의 계통에 대해서도 고구려·백제·예계·맥계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³³

현재까지 조사된 한반도 중부의 적석분구묘는 임진강유역과 북한강 및 남한강 수계를 따라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며, 최근 한강 수계의 지류를 따라 유적이



① 정선 아우라지 적석분구묘

② 광주 곤지암리 적석분구묘

그림7-한반도 중부 지역 적석분구묘 각종³⁴

- 32 김진영,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 동·북부지역 적석분구묘의 재인식」, 『백산학보』 123(2022), 6쪽.
- 33 박순발, 「漢城百濟 成立期 諸墓制의 編年 檢討」, 『선사와 고대』 6(1994); 심재연, 「한강 중·상류역의 적석총과 석촌동 적석총과의 관계」, 『백제 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한성백제박물관(2017); 김진영, 앞의 논문(2022); 박성현,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전개 양상과 축조집단에 대하여」, 『중원문화연구』 33(2023); 김성태, 「중부지방 적석총의 계통과 축조집단」, 『윤곡논총』 13(2023).
- 34 ①·②: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아우라지 유적 II-1권』(춘천: 도서출판 산책, 2019a), 〈도면 314〉, 〈원색사진 5〉, ③·④: 기념문화재연구원, 『광주 곤지암리유적<본문>』(수원: 경인M&B, 2023)의 〈도면 27〉, 〈원색사진 1〉.

조사되기도 한다. 적석분구묘는 기본적으로 강변에 형성된 자연사구 위에 다수의 묘곽을 설치하고 강들을 덮어 분구를 조성한 형태인데, 평면 형태는 지형에 원형·타원형·장방형 등 다양하다. 적석분구 내에는 대체로 장방형의 묘곽을 다수 설치하는데, 정선 아우라지 적석분구묘에는 51기, 광주 곤지암리 적석분구묘에는 80기의 묘곽이 연결되어 있다(〈그림7〉). 묘곽의 바닥은 특별한 시설 없이 자연 지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벽체는 주로 자연 상태의 천석을 그대로 쌓아 올렸으며, 묘곽의 벽면을 따라 입석을 돌려 세운 경우가 많다.³⁵

묘곽 축조에 사용된 석재와 축조 수법은 상하 간에 서로 차이가 있으며, 묘곽의 내부는 불규칙적으로 천석을 채웠는데, 두 개 이상의 층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별 묘곽은 석곽형 벽체 하부 축조 → 내부 석재 충전 → 입석 배치 → 벽체 상부 축조 및 내부 충전 등의 순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축조 상태로 보아 묘곽 내부에는 목곽이나 목관 등의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장자를 직접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축조된 묘곽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축하며 확장해 가는데, 선행 묘곽의 벽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덧붙여 축조하였다.³⁶

적석분구묘의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축조방식은 최근 조사에서 비교적 자세히 확인되고 있는데, 목관이나 목곽을 사용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인골이 출토된 사례도 많지 않아 장법이나 장속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최근 몇몇 유적에서 화장된 인골이 출토되고 있다. 광주 곤지암리유적에서는 80개의 묘곽 중 15개의 묘곽에서 화장된 인골이 출토되었으며,³⁷ 원주 주산리유적에서는 확인된 2기의 묘곽에서 모두 화장된 인골이 출토되었다.³⁸

광주 곤지암리 적석분구묘의 15개 묘곽에서 화장된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토된 인골은 매우 소량으로 화장된 인골의 극히 일부만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장골이 출토되지 않은 나머지 묘곽에도 당초 소량의 인골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개별 묘곽에서 여러 개체의 인골

35 강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9a; 2019b); 기념문화재연구원, 앞의 책(2023).

36 김진영, 앞의 논문(2022), 14~17쪽.

37 기념문화재연구원, 앞의 책(2023).

38 강원문화재연구소, 『원주 주산리 적석묘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약식보고서』(2023).

이 매장된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19호·21호·23호·39호·40호 묘곽에는 2개체 분 이상의 매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묘곽 내에서 인골의 개체별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섞여서 출토되며, 묘곽 구석의 바닥면에서 출토되는 특징이 있다. 넷째, 출토된 인골 부위에도 일관성이 없으며, 두개골·하악골·사지골 등이 작은 파편 상태로 뒤섞여 있는데, 이는 습골 과정에서 특정한 부위의 선호가 없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주 주산리 적석분구묘의 화장골 출토 상황도 대체로 곤지암리 경우와 동일한 양상으로 보인다.³⁹

4. 석촌동 연접식적석묘와 화장

서울 석촌동고분군은 한성기 백제 왕실의 묘역으로 추정되는데, 고구려계의 계단식적석총이 분포하고 있다(<그림8>-③). 과거 석촌동 일대에는 90여 기가 넘는 적석총과 봉토분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4기의 적석총과 1기의 봉토분이 복원되어 보존되고 있다. 적석총 중 1호분 남분과 3호분은 내부까지 돌로 채운 고구려식 적석총이고, 1호분 북분과 2호분, 4호분은 내부를 점토로 채운 이른바 백제식 적석총이다.

최근 1호분 북쪽 구역에서 연접식적석총이 새로 조사되었는데, 분구가 훼손되어 형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하고도 모두 32기의 적석묘가 연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8>-④). 32기의 적석묘 중 축조 방식을 파악 또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21기인데, 이 중 내부가 돌로 채워진 고구려식 적석묘가 12기, 내부를 점토로 충전한 백제식 적석묘가 9기이다.⁴⁰ 연접식적석총에서는 토기와 중국 청자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중국 청자의 편년에 따르면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2/4분기에 해당된다.⁴¹

39 하대룡, 「원삼국·백제 무덤에서의 화장과 기념」, 『고고학에서의 기억과 기념-제68회 전국 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한국고고학회, 2025), 37~38쪽.

40 정치영·민동민, 「백제 연접식적석총의 구조와 목관(곽)묘의 성격」, 『석촌동 고분군Ⅵ』(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24).

41 홍주희·한지수·황당운, 「석촌동 고분군 연접식적석총 출토유물 검토」, 『석촌동 고분군Ⅵ』(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24).

한편, 연접식적석총 1호·4호·7호 적석묘 외곽에는 매장의례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화장된 인골과 불에 탄 기와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그림8〉 ④~⑦). 각 매장의례부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토기와 기와, 소토 및 화장된 인골 등이 뒤섞여 있으며, 4호와 7호 매장의례부는 상면에 황갈색 점토를 덮어 마감하였다. 매장의례부에서는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15개 기종이 넘는 토기류를 비롯해 중국제 청자, 와당 및 기와류, 철제 무기류와 농공구류, 철절과 꺾쇠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1호 매장의례부에서는 목관이나 목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정 44점, 꺾쇠 50점이 출토되었다.⁴²



그림8-석촌동 1호분 북쪽 연접식적석총과 화장유구³⁴

42 정치영, 「석촌동 1호분 북쪽 연접식적석총의 구조와 성격」, 『고고학』 20-2(2021); 윤정현, 「서울 석촌동고분군 연접식적석총 매장의례부 구조와 유물」,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2022).

43 ①·②·③: 이선복·조가영, 『석촌동고분군 III』(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삽도 56〉, 〈사진 25〉, 〈삽도 4〉; ④·⑤: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고분군 II-1호분 북쪽 연접식적석총 2-상(본문·도면)』(2020) 〈도면 47〉, 〈원색사진 6〉; ⑥: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고분군 현장설명회 자료집』(2019); ⑦: 정치영, 앞의 논문(2021), 〈그림 5〉.

매장의례부에서 출토된 인골에 대한 분석 결과 1차 또는 2차 화장의 매장주체부 또는 화장유구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른 곳에서 화장한 후 인골과 불에 탄 기와 등을 수습하여 매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986년에 조사된 석촌동 3호분 동쪽 화장유구에서 출토된 인골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와는 달리 당해 장소에서 화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석촌동 3호분 동쪽 화장유구 등과 같이 별도의 장소에서 화장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 인골 등을 수습하여 적석층에 딸린 매장의례부에 여러 유물과 함께 매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유구의 경우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목탄과 화장된 인골이 출토되었으며, 일정 간격의 주공이 정연하게 남아 있었다(〈그림8〉-①·②). 또한 매장의례부에서는 불에 탄 기와와 소토 등이 확인되는데, 소토에는 유기물이 섞여 있으며, 일부는 기와에 부착된 상태로 확인되기도 한다. 이는 화장이 이루어질 때 점토를 펴고 기와를 얹은 지분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며, 다량의 관못과 꺾쇠가 함께 출토되는 점은 목관이나 목곽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석촌동 3호분 동쪽 화장유구는 지상에 여러 개 기둥을 세운 고상식 구조물이 있었으며, 그 위에 목관 또는 목곽을 안치한 기와지붕의 구조물이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화장이 완료된 후에는 인골과 기와 등을 함께 수습하여 적석층에 딸린 매장의례부에 매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⁴⁵

IV. 고구려 적석층 단계의 화장

화장은 시신을 처리하는 한 방식이자, 비교적 오래된 장례 풍습 중 하나이다. 신석기시대에 이미 화장은 세계 여러 민족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으며, 중국의 경

44 하대룡, 「화장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 본 석촌동고분군의 화장과 그 의미」,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2022).

45 정치영, 「고대의 화장과 석촌동적석층의 매장의례」,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2022).

우, 선진시기 이후 한·진 시기에 이르기까지 화장은 주로 소수민족 지역에서 유행하였다. 이후 동한시기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승려를 화장하는 관행의 영향으로 화장 풍습이 점차 중원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문헌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화장 풍습은 강족의 장속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에 따르면, “강족 사람은 죽으면 불태워 그 재를 날린다.”⁴⁶라고 하였으며, 또 “저·강의 백성은 얹매임을 근심하지 않고, 다만 죽어 화장되지 못함을 근심한다.”⁴⁷라고 전한다.

황하 상류에 위치한 감청지역은 역사적으로 강족의 주요 활동 무대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 지역 초기 화장묘의 발생은 현지에 거주하던 강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서부 지역의 화장묘는 묘곽에서 직접 화장하는 방식과 외부에서 화장하여 습골 후 매장하는 방식의 두 유형이 있는데, 전자가 먼저 등장하였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후자가 유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⁴⁸ 중국 동북지방의 경우 선사시대의 화장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동기시대 후기에 화장 습속이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장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불태워 장송하는 의례 행위를 칭하는 말이지만, 유적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화장 인골은 서로 다른 과정의 결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시신을 불태운 상태 그대로 매장을 하는 경우 불에 탄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를 1차장이라 하고, 불에 탄 유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습하여 무덤에 매납하는 경우를 2차장으로 구분한다. 2차장의 경우에는 화장한 장소와 매장한 장소가 구분되는데, 습골은 화장 인골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나, 화장 과정에서 인골이 극심한 파편화를 겪기 때문에 큰 골편 위주로 습골하고 아주 작은 골편은 습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습골된 화장골의 부위는 무작위일 수 있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는 두개골 등 특정 부위가 선호될 수도 있다.⁴⁹

46 羌人死 燔而揚其灰(『太平御覽』, 四夷部 十五, 西戎三, 湟中月氏胡).

47 氏羌之慮也 不憂其繫累也 而憂其不焚也(『荀子集解』大略篇). 氏羌之民 其慮也 不優其繫慮 而憂其死不焚也(『呂氏春秋』孝行覽 義賞).

48 刘莉蕊, 「中国西部地区早期火葬墓的空间分布区域与传播」, 『文物鉴定与鉴赏』2023-15(2023).

49 그러나 실제 화장과 관련된 행위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했을 것인데, 춘천 신매리유적

습골된 골편은 망자의 유해로 취급되어 장골 용기나 별도의 매장주체부에 안치한다. 화장 잔존물 내에서 선택되었으므로 장골기나 매장주체부 안에는 대량의 목탄이 공반될 가능성이 낮으며 화장골 중심으로 출토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습골 이후 남은 골편은 화장 과정에서 발생한 목탄 등 다른 잔존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폐기된다. 이런 경우의 화장골은 물리적으로는 망자의 일부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상징적 의미를 일정 부분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폐기의 장소는 대량의 목탄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화장유구 근처 일정한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 폐기유구에서 확인되는 화장골은 매장을 위해 습골된 화장골과 달리 대량의 목탄 및 소토와 공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화장 과정에서 사용된 부장품이나 의례적 물품과 공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폐기 과정에서 화장유구 혹은 그 일대에 화장골 일부가 남았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장자의 유골 자체가 갖는 상징성은 상당 부분 소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⁰

한편, 망자의 시신을 불에 태워 처리한다는 면에서 화장과 번소는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번소는 제의·정화·징벌 등을 목적으로 시신을 불에 태우는 행위로서 장송의례의 하나인 화장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중국 고대에서 신체를 불에 태우는 번소 행위는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네 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보복적 소각(retaliatory burning)으로 가장 오래된 형태는 적의 시신을 불태워 저주하거나 복수하는 행위였다. 두 번째는 질병·전염 방지를 위한 소각(burning of the diseased)으로 전염병 환자나 병사한 자를 불태우는 방역적 화장이다. 셋째는 자살적 소각(suicidal burning)으로 명예와 충절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소각이다. 이는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행위로, 고대 중국의 ‘절의(節義)’ 전통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넷째는 종교적 헌신으로서의 소각(religious self-immolation)으로 불교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자기희생(自焚)이

의 고구려 석실 내에서는 완전히 분리한 후 의도적으로 재배치한 인골이 확인되었다. 그 중 두개골, 하악골, 제1경추 등 두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만 선택적으로 화장된 인골도 조사되었는데, 피장자는 1차로 세골장을 거쳐 두개골과 하악골 등 머리 부분은 그대로 수습하여 매장하고, 나머지 부위는 화장을 실시한 후 매장한 특이한 경우이다. 하대룡, 「춘천 신매리 고구려 석실 피장자의 사체 처리방식 검토」, 『고고학』 20-2(2021), 43-66쪽.

50 하대룡, 앞의 논문(2022), 532-533쪽.

다. 이는 “자신의 몸을 부처에게 바친다”라는 보시행(布施行)의 한 형태로, ‘자화(火身)’ 혹은 ‘자연(自燃)’이라 불렸다.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행위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공덕을 쌓고 타인을 구제하기 위한 희생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처럼 네 가지 유형의 신체 소각은 파괴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 보복적·방역적 소각은 타인을 제거하거나 재앙을 막기 위한 ‘부정적 소각’이었고, 자살적·종교적 소각은 명예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긍정적 소각’이었다.⁵¹

그런데 어떠한 맥락에서 행해진 번소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유적에서 번소 행위를 장송의례로서 행해진 화장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장으로서의 화장을 행한 경우 화장유구 주변이나 폐기 장소에서 출토되는 화장골을 화장의 결과인지 번소의 결과인지 판단하는 것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매장주체부가 아닌 곳에서 화장골 등이 출토될 경우 번소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고학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고구려 적석총의 경우에도 매장주체부가 아닌 적석부에서 용석이나 불에 탄 기와 또는 화장골이 출토되는 경우 이를 번소의 결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화장과 번소를 직접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 전후 주변 지역에서 화장이 장송 방식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은 적석총의 화열 흔적 가운데 일부를 화장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비교 고고학적 배경을 제공한다.⁵² 즉, 신석기시대 이래 적석묘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된 요동반도 남단 지역에서는 기원전 1500년경 토통자적석묘에서 외부에서 화장된 인골을 습골하여 매장한 2차장이 확인되며, 이후 강상·루상·와룡천 적석묘에서도 기원전 3세기까지 화장의 장속이 이어졌다.⁵³ 또한 고구려 적석총의 출

51 Christina Han, “Cremation and Body Burning in Five Dynasties China,” *Journal of Chinese Studies*, No. 55, 2012, pp. 1~22.

52 국내성 시기 잦은 전쟁으로 도성이 함락된 사례가 있었고, 압록강 남안의 적석총에서는 불에 탄 인골이나 용석 및 불에 탄 기와가 확인되는 사례가 드물게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전쟁 피해의 결과로 추론하는 견해도 있다[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2005)]. 그러나 집안지역 적석총의 절반가량에서 불 맞은 용석과 불에 탄 기와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전쟁의 결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53 강현숙, 앞의 논문(2024), 562~563쪽.

현과 거의 동시기로 편년되는 압록강 상류의 장백 간구자고분군에서도 화장이 행해졌으며, 기원전 6세기부터 고구려 초기까지의 여러 묘제가 지속적으로 축조된 통화 만발발자유적에서도 오랜 기간 화장 장속이 지속되었다.

요동반도 적석묘와 고구려 적석총은 구조와 시공간에서 차이가 있으며, 간구자고분군 역시 고구려 적석총과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계통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적석분구와 집단묘, 화장 등의 요소가 주변 지역 여러 묘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은 고구려 적석총의 화열 흔적을 해석하기 위한 비교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통화 만발발자유적에서는 시기별로 다른 묘제가 축조되는 과정에서 화장이 장송 방식의 하나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들 선행 묘제와 고구려 적석총 사이의 직접적인 계통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일 지역에서 고구려 적석총 출현 이전부터 화장 장속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고구려 초기 장속의 지역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한반도 중부 지역의 적석분구묘 역시 고구려 적석총과 직접적인 계통 관계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적석묘와 화장 장속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비교 자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고구려 적석총에서 보이는 용석과 불에 탄 기와, 화장 인골을 화장의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론하였는데, 아래에서는 고구려 적석총에서 행해진 화장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 적석총에서 보이는 화장 흔적은 적석석광묘에서 높은 비율로 확인되다가 적석광실묘 단계에서는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적석석실묘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적석석광묘는 무기단목곽적석총·기단목곽적석총, 적석광실묘는 기단목실적석총·계장목실적석총으로 세분할 수 있다. 고구려 적석총의 매장주체부 구조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된 사례가 드물지만, 출토된 꺾쇠와 관못, 장막걸이쇠 등의 장구를 통해 대략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집안지역 적석총을 오랫동안 조사해 온 손인걸에 따르면, 적석석광묘는 작은 방 모양의 상자형 목곽을 사용하였는데, 목곽 내부에는 장막을 늘어뜨렸으며,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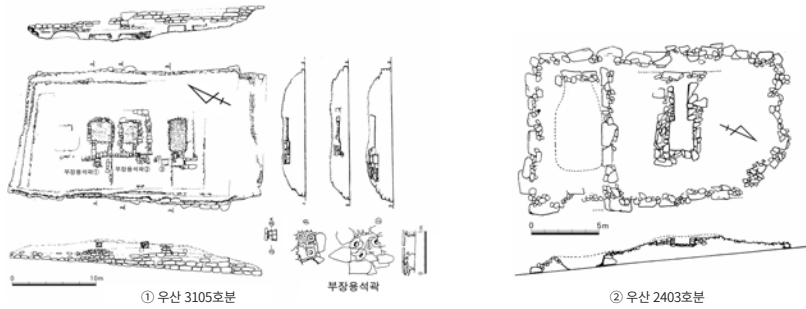


그림9-우산고분군 목실적석총 각종⁵⁴

곽 주위는 돌을 쌓아 마감하고, 상부는 돌을 쌓아 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석광실묘에는 목곽 내부에 목관을 별도로 추가하였는데, 이 시기에 묘 정상에 기와를 덮은 사례가 증가한다고 한다.⁵⁵ 중국 연구자들은 석광이나 광실 모두 목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광실로 구분한 고분의 경우 출입구 흔적이 있거나, 출입구 좌우에 부장을 위한 석상(石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그림9〉).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광실은 출입구가 달린 목실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음 단계의 천추총이나 태왕릉과 같은 계단식적석총의 석실 내부에서 가형석곽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목실의 구조는 출입구를 갖춘 맞배지붕 구조의 가옥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⁵⁶

한편, 옥저의 무덤에 관한 기록에 묘곽의 형태에 대한 묘사가 있어서 참고가 된다. “그들은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곱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은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모두 가매장 하되, 겨우 형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족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빼만 추려 곱 속에 안치한다. 온 집안 식구를 모두 하나의 곱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수만큼 살아 있을 때의 모습으로 나무에 모양을 새긴다. 또 질술에 쌀을 담아서

5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延邊: 延邊大學出版社, 1993), 34쪽.

55 孫仁杰, 앞의 논문(1993), 121쪽.

56 최종택, 앞의 논문(2024).

곽의 문 곁에다 엮어 매단다.”⁵⁷ 여기서 나무 곽의 한쪽을 열어 문을 만든다는 구절이 주목되는데, 고구려 적석총의 목실(광실) 구조도 이와 유사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집안 집석공로고분군 중 우산 3105호분과 같은 광실(목실)묘에서는 장방형 묘곽 한쪽에 출입구가 있고, 그 한쪽에는 석상이 있으며, 내부에서는 토제 술과 호가 출토된다는(〈그림9〉) 점에서⁵⁸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집안지역의 적석총에서 출토되는 용석이나 불에 탄기와 등은 주로 매장주체부가 있었던 정상부의 함몰갱과 주변에서 출토되며, 석광에서 불 맞은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여 묘광 내부에서 화장이 행해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⁵⁹ 이에 따르면 적석총에서 행해진 화장은 1차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거대한 고분을 축조한 후 목곽이나 목실을 불태운 것이 되며, 이는 일종의 파괴행위를 동반하는 것으로 많은 노동력과 재화를 들여 축조한 무덤을 파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목곽의 구조를 고려할 때 목곽 내부에서 직접 화장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적석총의 목곽은 기본적으로 수혈식 구조로 추가장이 불가능하며, 목곽 내부에 장막을 설치하고, 상부를 적석으로 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묘곽 내부에서 화장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적석총의 매장주체부가 함몰갱 형태로 남아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목곽 상부 구조가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가 후대에 붕괴하였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양상은 목곽 내부에서 대규모의 소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목곽을 설치하고 내부에서 화장했다면, 한반도 중부 지역의 적석분구묘에서처럼 화장을 실시한 후 묘곽 내부를 적석 등으로 충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렇다면 매장주체부가 함몰갱 형태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화장 관련 흔적은 적석총 외부에서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수습하여 매납한 2차장의 결과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

57 其葬作大木槨，長十餘丈，開一頭作戶。新死者皆假埋之，才使覆形，皮肉盡，乃取骨置槨中。舉家皆共一槨，刻木如生形，隨死者爲數。又有瓦甕，置米其中，編縣之於槨戶邊(『三國志』魏書 東夷傳 東沃沮條)。

5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앞의 논문(1993) 〈도 6〉, 〈도 8〉.

59 孫仁杰, 앞의 논문(1993).

다. 다만 고구려 적석총에서는 화장 인골의 상세한 분석이나 화장 장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모든 적석총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구려 적석총의 화장 흔적이 매장주체부와 그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고 하지만 현지를 답사한 경험에 따르면 용석과 불에 탄 기와는 적석부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 역시 2차장의 결과로 해석하는 방증 자료가 된다.

한편, 석촌동고분군 연접식적석묘의 화장 사례는 화장 장소와 최종적인 인골 매납 장소가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비교 자료이다. 이를 고구려 적석총의 장속과 직접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고구려 적석총의 화열 흔적과 화장 인골의 매납 과정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석촌동 1호분 북쪽의 연접식적석묘에는 32기의 적석묘가 연접되어 있는데, 적석묘와 별도의 매장의례부 3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소수의 적석묘에서 아주 적은 양의 화장 인골이 출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화장 인골은 매장의례부에 집중되어 출토된다. 매장의례부에서는 다량의 화장 인골 외에도 토기류와 중국제 청자, 와당 및 기와류, 철제 무기류와 농공구류, 철정과 꺾쇠 등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1호 매장의례부에서는 목관이나 목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철정과 꺾쇠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매장의례부에서 출토된 인골과 유물은 다른 곳



그림10-고구려 적석총의 묘설⁶⁰⁾

60 ①·③: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4-고구려편(2)』(평양: 외국문화 종합출판사, 1990), 도판 82, 도판 43; ②: 陳大爲, 「試論桓仁高句麗積石墓的類型年代及其演變」, 『遼寧省考古·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1981)〈도 2〉.

에서 화장한 후 수습하여 매장한 것이 확실하며, 석촌동 3호분 동쪽 고분군의 화장유구에서 화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적석총에서 화장과 관련된 시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묘설(墓舌)로 불리는 시설이 주목된다. 고구려 적석총 분구 앞에 반원형 또는 타원형의 기반부가 달린 고분도 여러 기 있는데, 환인 고령묘자 19호분 <그림10>-②와 같이 연접식적석총에서 많이 확인된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적석총 앞에 부가된 묘설을 제단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묘설이 연접식적석총에서 많이 확인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에 연접해 축조할 무덤을 위해 미리 만들어진 기반시설로 이해하기도 한다.⁶¹

석촌동 연접식적석묘의 사례를 고려하면, 고구려 적석총에서도 묘곽 외부의 별도 공간이 장송의례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묘설에서 화장 인골이나 화장 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확인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묘설을 화장 인골의 매납시설로 직접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필요한 이유는 화장의 흔적이 주로 확인되는 적석총의 매장주체부가 목곽이라는 점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목곽은 수혈식묘제로 기본적으로 추가장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피장자의 수가 여러 명이라도 동시에 매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촌동적석총과 같이 별도의 화장 인골을 매납할 수 있는 매장예부와 같은 시설 없이는 다수의 화장 인골을 하나의 묘곽 안에 매납할 수 없다.

통구분지에는 1만여 기가 넘는 고분이 조사되었고, 그중 적석총은 3,595기에 달하는 많은 수이다.⁶² 그러나 평양 천도 이전 400년 이상 지속된 주 묘제가 적석총이므로 연간 축조된 고분의 수는 10여 기에 불과하며, 보존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국내성 시기의 인구를 고려하면 당시 무덤을 조영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적석총의 주 피장자가 정치·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가진 집단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적석총에 매장되지 않은 집단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화장 등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을

61 유람, 「고구려 적석묘 연구」, 『고구려연구』 12(2001).

62 최종택, 앞의 논문(2024) <표 1> 참조.

가능성도 하나의 가설로 검토할 수 있다.

고구려 적석총의 열상배치와 연접묘 등의 특징이 집단묘적 장속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과 함께 고려하면, 직계 가족이나 친족집단 등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의 유력자는 적석총의 목곽에 매장되고, 집단의 나머지 구성원은 화장 후 적석총의 일정 공간에 매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존 조사자료에서는 화열 흔적이 목곽적석총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보고되고, 목실 단계에서는 감소하며 석실적석총에서는 드물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화장 습속의 직접적인 감소나 소멸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장주체부가 목곽에서 목실·석실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장송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⁶³

V. 맺음말

이상에서 고구려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화장 또는 번소 행위의 실상과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가졌던 죽음과 사자의 신체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인식의 일면을 고찰하였다. 고구려 적석총에서는 용석과 불에 탄 기와 및 석재, 드물게는 불에 탄 인골 등의 화열 흔적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다. 고구려 적석총의 묘형은 목곽 → 목실 → 석실로, 분형은 무기단식 → 기단식·계장식 → 계단식 순으로 변천하는데, 기존 조사자료를 종합하면 이러한 화열 흔적은 목곽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비교적 이른 단계의 적석총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보고되고, 목실 단계에서는 사례가 감소하며, 석실적석총 단계에서는 드물게 확인되는 경향이 있다.

요동반도 남단 지역에서는 이미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화장, 다인합장, 집단묘 전통이 광범위하게 지속되었으며,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 시기와 시공을 공유하

63 이러한 추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저의 경우 출입구가 설치된 목곽에 세골장을 통한 가족장이 행해졌다는 사실이나, 발해 시기의 석실묘에는 하나의 석실에 여러 구의 인골이 추가로 매납된 사실을 통해 불 때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는 통화 만발발자유적에서도 화장 장속이 오랜 기간 연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변 지역의 화장 전통은 고구려 적석총의 화열 흔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성격을 검토하기 위한 비교고고학적 배경자료로 충분하다. 현재의 자료만으로 고구려 적석총의 모든 화열 흔적을 화장이나 번소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불에 탄 인골이 확인되는 일부 사례와 주변 지역에서 확인되는 화장 장속을 함께 고려할 때, 적석총의 화열 흔적은 장송의례로서의 화장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목곽이나 목실 내부에서 시신과 목조시설을 함께 소각하였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확인되는 화열 흔적과 매장주체부의 구조를 볼 때 화장이 이루어진 장소를 목곽 내부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고구려 적석총의 화장 흔적은 외부에서 시신을 태운 후 유골을 수습하여 무덤에 매장하는 2차장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석촌동고분군 연접식적석묘에서 화장 장소와 최종적인 인골 매납 장소가 분리되어 확인되는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된다. 또한 고구려 적석총의 묘설과 같은 부가시설이 장송의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묘설에서 화장 인골이나 화장 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그 기능을 화장 인골의 매납시설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인구와 축조된 적석총의 수를 비교할 때, 적석총의 주 피장자는 정치·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유력자에 국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석총의 열상배치와 연접묘가 집단묘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장된 인골 가운데 일부가 주 피장자와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집단 구성원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자료로 그 구체적인 관계를 혈연이나 지연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고구려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화장 관련 자료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이후 여러 묘제와 함께 확인되는 화장 장속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비교·검토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조사자료에서는 화열 흔적이 목곽적석총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보고되고 목실 단계에서 감소하며 석실 단계에서는 드물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적석총의 구조 변화와 함께 장송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 적석총에서 보이는 화열 흔적

과 화장 관련 자료를 새롭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고구려 사람들의 죽음과 몸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추론함으로써 고구려 사회를 다층적·다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남으며, 글에서 제시한 일부 가설은 향후 발굴자료와 분석 결과의 축적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아우라지 유적 II-1권』, 춘천: 도서출판 산책, 2019a.
-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아우라지 유적 II-2권』, 춘천: 도서출판 산책, 2019b.
- 강원문화재연구소, 『원주 주산리 적석묘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약식보고서』, 2023.
- 기남문화재연구원, 『광주 곤지암리Ⅲ유적〈본문〉』, 수원: 경인M&B, 2023.
- 이선복·조가영, 『석촌동고분군 Ⅲ』, 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4-고구려편(2)』, 평양: 외국문물종합출판사, 1990.
-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고분군 현장설명회 자료집』, 2019.
-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고분군 II-1호분 북쪽 연접적석총2-상(본문·도면)』, 2020.
- 『呂氏春秋』, 『三國志』, 『荀子集解』, 『太平御覽』.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吉林長白顯干溝子墓地發掘報告」, 『考古』 2003-8, 2003, 45~70쪽.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 21~79쪽.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集安高句麗王陵』, 北京: 文物出版社, 2004.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8年集安市洞溝古墓群考古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9輯, 2010, 381~420쪽.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2019.
- 李新全, 『高句麗早期遺存及期起源研究』, 長春: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08.
- 長福有, 『高句麗王陵通鑑』, 香港: 香港亞洲出版社, 2007.
- 張長江, 「于家砦頭墓地研究」, 瀋陽: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 朝中合同考古學發掘隊, 『崗上樓上-1963-1965 中國東北地方遺蹟發掘報告』, 東京: 六興出版, 1965.

2. 논저

- 강현숙, 『고구려 고분 연구』, 과천: 진인진, 2013.
- 강현숙, 「만발발자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 『동북아역사논총』 71, 2021. 149~190쪽.
- 강현숙, 「중국 요동반도 남부 선사시대 적석분의 고고학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132, 2024, 549~570쪽.

- 강현숙·양시은·최종택, 『고구려 고고학』, 과천: 진인진, 2020.
- 김성태, 「중부지방 적석총의 계통과 축조집단」, 『윤곡논총』 13, 2023, 147~183쪽.
-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 2005, 115~154쪽.
- 김진영,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 동·북부지역 적석분구묘의 재인식」, 『백산학보』 123, 2022, 5~51쪽.
- 나희라,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서울: 지식산업사, 2008.
- 박성현,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전개양상과 축조집단에 대하여」, 『중원문화연구』 33, 2023, 335~359쪽.
- 박순발, 「漢城百濟 成立期 諸墓制의 編年 檢討」, 『선사와 고대』 6, 1994, 3~21쪽.
- 심재연, 「한강 중·상류역의 적석총과 석촌동 적석총과의 관계」, 『백제 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한성백제박물관, 2017.
- 유람, 「고구려 적석묘 연구」, 『고구려연구』 12, 2001, 1145~1169쪽.
- 윤정현, 「서울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 매장형태부 구조와 유물」, 『제46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자료집』, 2022.
- 이종수,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 통화 만발발자유지 고고발굴 보고」, 『야외고고학』 37, 2020, 129~168쪽.
- 이종수, 「통화 만발발자유지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71, 2021, 191~227쪽.
- 정치영, 「석촌동 1호분 북쪽 연접적석총의 구조와 성격」, 『고고학』 20-2, 2021, 67~89쪽.
- 정치영, 「고대의 화장과 석촌동적석총의 매장형태」,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2022.
- 정치영·민동민, 「백제 연접적석총의 구조와 목관(곽)묘의 성격」, 『석촌동 고분군 VI』,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24.
- 최종택, 「고구려 적석총 군집묘 축조와 혼계」, 『한국학』 47-3, 2024, 57~102쪽.
- 하대룡, 「춘천 신매리 고구려 석실 피장자의 사체 처리방식 검토」, 『고고학』 20-2, 2021, 43~66쪽.
- 하대룡, 「화장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 본 석촌동고분군의 화장과 그 의미」,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2022, 531~539쪽.
- 하대룡, 「원삼국~백제 무덤에서의 화장과 기념」, 『고고학에서의 기억과 기념-제68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2025.
- 홍주희·한지수·황당운,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 출토유물 검토」, 『석촌동고분군 VI』,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24.
- 刘莉蕊, 「中国西部地区早期火葬墓的空间分布区域与传播」, 『文物鉴定与鉴赏』 2023-15, 2023, 109~112쪽.

- 方起東,「高句麗的墓制和葬俗」,『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93-1, 1993, 344~349쪽.
- 孫仁杰,「高句麗積石墓葬具研究」,『高句麗研究文集』,延邊大學出版社, 1993, 113~122쪽.
- 李新全,「辽东地区积石墓的演变」,『東北史地』2009-1, 2009, 3~9쪽.
- 長福有,『高句麗王陵通鑑』,香港: 香港亞洲出版社, 2007, 101쪽.
- 長福有·孫仁杰·遲勇,「集安蒿子溝墓地調查與東川王陵考」,『東北史地』2006-3, 2006, 5~8쪽.
- 趙俊杰·馬健·金旭東,「吉林長白縣干溝子墓地的文化性質與相關問題」,『考古』2016-5, 2016, 71~78쪽.
- 陳大爲,「試論桓仁高句麗積石墓的類型年代及其演變」,『遼寧省考古·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 1981, 243~248쪽.
- Han, Christina, Cremation and Body Burning in Five Dynasties China, *Journal of Chinese Studies*, No. 55, 2012, pp. 1~22.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Jeongseon Auraji Site II-1*, Chuncheon: Sanchaek Publishing, 2019a.
-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Jeongseon Auraji Site II-2*, Chuncheon: Sanchaek Publishing, 2019b.
-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Preliminary Report on the Site within the Maintenance Project Area of the Jusan-ri Stone Mound Tomb, Wonju*, 2023.
- Ginam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Gonjiam-ri III Site, Gwangju: Main Text*, Suwon: Gyeongin M&B, 2023.
- Hanseong Baekje Museum, *Site Briefing Report on the Seokchon-dong Tombs, Seoul*, 2019.
- Hanseong Baekje Museum, *The Seokchon-dong Tombs, Seoul II: Connected Stone Mound Tombs North of Tomb No. 1, Vol. 2-1 (Text and Drawings)*, 2020.
- Jilin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and Ji'an Municipal Office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Relics, "Excavation of Tombs along the Ji-Xi Highway in the Yushan Cemetery Area of the Donggou Ancient Tombs, Ji'an," *Collected Studies on Koguryo*, Yanbian University Press, 1993, pp. 21–79.
- Jilin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Excavation Report of the Ganguzi Cemetery in Changbai County, Jilin," *Archaeology* 2003-8, 2003, pp. 45–70.
- Jilin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and Ji'an Municipal Museum, *Koguryo Royal Tombs at Ji'an*, Beijing: Cultural Relics Press, 2004.
- Jilin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and Ji'an Municipal Museum, "Archaeological Excavation Report of the Donggou Ancient Tombs in Ji'an in 2008," *Research on Frontier Archaeology* 9, 2010, pp. 381–420.
- Jilin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and Tonghua Municipal Office of Cultural Relics Management, *Archaeological Excavation Report of the Wanfabazi Site in Tonghua*, Beijing: Science Press, 2019.
- Joint Sino-Korean Archaeological Excavation Team, *Gangshang and Loushang: Excavation Report of Archaeological Sites in Northeast China, 1963–1965*, Tokyo: Rikko Publishing, 1965.
- Lee, Sunbok, and Gayoung Cho, *The Seokchon-dong Tombs III*,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5.
- Lüshi Chunqiu, Sanguozhi, Taiping Yulan, Xunzi Jijie*.

2. Books and Journal Articles

- Chang, Fuyou, *A Comprehensive Study of Koguryo Royal Tombs*, Hong Kong: Hong Kong Asia Press, 2007.
- Chang, Fuyou, Renjie Sun, and Yong Chi, "Survey of the Haozigou Cemetery in Ji'an and a Study of the Tomb of King Dongcheon," *Northeast History and Geography* 2006-3, 2006, pp. 5–8.
- Chen, Dawei, "A Preliminary Study of the Typology, Chronology, and Development of Koguryo Stone Mound Tombs in Huanren," *Proceedings of the Founding Conference of the Liaoning Provincial Archaeology and Museology Association*, 1981, pp. 243–248.

- Choi, Jongtaik, "Construction of Clustered Koguryo Stone Mound Tombs and Mixed-Lineage Groups," *Korean Studies* 47(3), 2024, pp. 57–102.
-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Illustrated Catalogue of Korean Sites and Artifacts, *Illustrated Catalogue of Korean Sites and Artifacts, Vol. 4: Koguryo (2)*, Pyongyang: Foreign Languages Comprehensive Publishing House, 1990.
- Fang, Qidong, "Koguryo Burial Systems and Funerary Customs," *Northeast Asian History and Archaeological Information* 93-1, 1993, pp. 344–349.
- Ha, Daeryong, "A Study of the Treatment of the Deceased in a Koguryo Stone-Chamber Tomb at Sinmae-ri, Chuncheon," *Archaeology* 20(2), 2021, pp. 43–66.
- Ha, Daeryong, "Cremation at the Seokchon-dong Cemetery and Its Significance through Cremation Process Modeling," *Proceedings of the 46th 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2022, pp. 531–539.
- Ha, Daeryong, "Cremation and Commemoration in Proto-Three Kingdoms–Baekje Tombs," *Memory and Commemoration in Archaeology: Proceedings of the Archaeology Section of the 68th National Congress of Korean History*,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2025.
- Hong, Juhee, Jisoo Han, and Dangwoon Hwang, "A Review of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Connected Stone Mound Tombs at the Seokchon-dong Cemetery," *The Seokchon-dong Tombs VI*, Seoul Baekje Museum, 2024.
- Jeong, Chiyoung,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nected Stone Mound Tombs North of Seokchon-dong Tomb No. 1," *Archaeology* 20(2), 2021, pp. 67–89.
- Jeong, Chiyoung, "Cremation in Ancient Korea and Burial Rituals at the Seokchon-dong Stone Mound Tombs," *Proceedings of the 46th 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2022.
- Jeong, Chiyoung, and Dongmin Min, "The Structure of Baekje Connected Stone Mound Tomb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oden Coffin (Chamber) Burials," *The Seokchon-dong Tombs VI*, Seoul Baekje Museum, 2024.
- Kang, Hyunsook, *A Study of Koguryo Tombs*, Gwacheon: Jininjin, 2013.
- Kang, Hyunsook, Si-eun Yang, and Jongtaik Choi, *Koguryo Archaeology*, Gwacheon: Jininjin, 2020.
- Kang, Hyunsook, "A Discussion on the Emergence of Koguryo Stone Mound Tombs Based on the Burials at the Wanfabazi Sit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71, 2021, pp. 149–190.
- Kang, Hyunsook, "An Archaeological Review of Prehistoric Stone Mound Tombs in the Southern Liaodong Peninsula," *Journal of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132, 2024, pp. 549–570.
- Kim, Jinyoung, "A Reconsideration of Stone Mound Burials in the Central-Eastern and Northeastern Regions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and Hanseong Baekje Periods," *Baeksan Hakbo* 123, 2022, pp. 5–51.
- Kim, Seongtae, "The Origins and Construction Groups of Stone Mound Tombs in Central Korea," *Yungok Nonchong* 13, 2023, pp. 147–183.
- Kim, Yongseong, "A New Understanding of Tomb Types and Burial Practices in Koguryo Stone Mound Tombs," *Journal of Northern History* 3, 2005, pp. 115–154.
- Lee, Jongsu, "A Treasure House of the Origins of Koguryo Culture: Archaeological Excavation of the Wanfabazi Site in Tonghua," *Field Archaeology* 37, 2020, pp. 129–168.
- Lee, Jongsu, "The Genealogy and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Burials at the Wanfabazi Site in Tonghua,"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71, 2021, pp. 191–227.

- Li, Xinquan, *A Study of Early Koguryo Remains and Their Origins*, Ph.D. dissertation, Jilin University, Changchun, 2008.
- Li, Xinquan, "The Development of Stone Mound Tombs in the Liaodong Region," *Northeast History and Geography* 2009-1, 2009, pp. 3-9.
- Liu, Lirui, "Spatial Distribution and Diffusion of Early Cremation Burials in Western China," *Cultural Relics Identification and Appreciation* 2023-15, 2023, pp. 109-112.
- Na, Heera, *Ancient Koreans' Views of Life and Death*, Seoul: Jisik-Sanup Publications, 2008.
- Park, Seonghyeon,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Groups of Non-Terraced Stone Mound Tombs in Southern Korea," *Journal of Jungwon Cultural Studies* 33, 2023, pp. 335-359.
- Park, Soonbal, "A Chronological Review of Burial Systems during the Formation of Hanseong Baekje," *Prehistory and Ancient History* 6, 1994, pp. 3-21.
- Sim, Jaeye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one Mound Tombs in the Middle and Upper Han River Basin and the Seokchon-dong Stone Mound Tombs," *Origins and Genealogy of Early Baekje Tombs*, Seoul Baekje Museum, 2017.
- Sun, Renjie, "A Study of Burial Furnishings in Koguryo Stone Mound Tombs," *Collected Studies on Koguryo*, Yanbian University Press, 1993, pp. 113-122.
- Yoon, Jeonghyeon, "Structure and Artifacts of the Burial-Ritual Areas of the Connected Stone Mound Tombs at the Seokchon-dong Cemetery, Seoul," *Proceedings of the 46th 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2022.
- Yu, Ram, "A Study of Koguryo Connected Stone Mound Tombs," *Koguryo Studies* 12, 2001, pp. 1145-1169.
- Zhang, Changjiang, *A Study of the Yujia Tuotou Cemetery*, Master's thesis, Liaoning University, Shenyang, 2020.
- Zhao, Junjie, Jian Ma, and Xudong Ji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Ganguzi Cemetery in Changbai County, Jilin, and Related Issues," *Archaeology* 2016-5, 2016, pp. 71-78.

Figure

- Figure 1. Huzigou Tomb No. 1 in Ji'an and Excavated Artifacts and Vitrified Stones
-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Koguryo Stone Mound Tombs
- Figure 3. Distribution of Koguryo Stone Mound Tombs and Stone Mound Tombs in the Liaodong Peninsula and Central Korean Peninsula
- Figure 4. Spatial and Chronological Distribution of Stone Mound Tombs in the Southern Liaodong Peninsula
- Figure 5. Overview, Plan, and Section of Tomb No. 2 (BM2), Area B, Ganguzi Cemetery, Changbai
- Figure 6. Tomb Types of Phases III-IV at the Wanfabazi Site in Tonghua
- Figure 7. Types of Stone Mound Burials in the Central Korean Peninsula
- Figure 8. Connected Stone Mound Tombs North of Seokchon-dong Tomb No. 1 and Cremation Features
- Figure 9. Types of Wooden-Chamber Stone Mound Tombs in the Yushan Cemetery
- Figure 10. Myoseol(墓舌) Features of Koguryo Stone Mound Tombs